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An Analysis of Toddlers' Interactions with their Peers and Caregivers
According to the Class Size of the Child Care Centers

권 혜 진**

Kwon, Hye Jin

이 순 형***

Yi, Soon H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oddlers'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 with their peers and caregivers according to the class size of child care centers in Seou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 two-year-old(M=32.5 month) toddlers with peers and caregivers from child care centers in different class sizes, but with same caregiver-toddler ratio.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s were videotaped during one hour indoor free play per child in the center.

According to the class siz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oddlers in the small class played more cooperatively with peers, and uttered more regulative or directive words than those in the large class. 2) Toddlers in the large class were more aggressive than those in the small class. 3) Caregivers in small class expressed more empathetic behaviors to a toddler than those in large class.

Key Words : 집단크기(class size),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verbal/nonverbal interaction)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1월 3일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 보조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E-mail : jini65@snu.ac.kr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며(Piaget, 1926),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내면화한다는 점(Rogoff, 1990)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발달에 필수적이다. Piaget의 인지발달론과 Vygotsky의 사회적 맥락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어떠한 조건하에서 누구와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발달적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였다. Piaget는 타인과 사고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적 비평형 상태를 다시 평형화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지구조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Piaget는 아동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은 인지적 격차가 너무 커서 아동에게 인지적 비평형화를 유도하지 못하므로 인지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또래간 상호작용이 발달적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Piaget는 아동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은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Piaget와는 달리 Vygotsky는 아동은 태어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Vygotsky는 발달을 사회의 문화를 배우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동이 성인이나 보다 유능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달적 의미를 가지는 시기에 관한 논쟁과 관련하여 아동들의 언어 사용(Blount, 1984 ; Pellegrini, 1984)과 사회적 상호작용(Rubin, Fein, & Vandenberg,

1983)에 관한 연구들은 전조작기 아동들에 대한 Piaget의 자아중심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1세아들도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고 감정이입적인 행동을 나타내고(Hay, Pederson, & Nash, 1982) 아주 일찍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에 따라 다른 행동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아동과 성인과의 상호작용만을 다루고 있거나, 또래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유치원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호작용 대상이 확대되는 시기인 2-3세아의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상호작용 대상이 어머니에게서 다른 성인이나 또래로 확장되는 시기인 2, 3세의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Piaget와 Vygotsky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응시하기, 사회적 미소와 같은 비언어적인 형태로 시작되어 12개월 이후 언어 능력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점차 언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적 상호작용은 차례로 말하기, 함께 주의를 기울이기, 상황, 문화적 관례와 같은 비언어적 측면과 함께 이루어진다(Vygotsky, 1962). 언어 이전 시기에도 영아들은 말소리나 억양, 몸짓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일관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능력이 덜 발달해서 의사소통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더 많이 의존

하며(이강이, 1998),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소통 양식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의 비중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언어적 상호작용과 함께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상호작용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Pellegrini, 1982). 예를 들면 아동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동조하는 행동이나 요청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또래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래와 경쟁하는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이강이, 1998).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 역시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영아들의 보육시설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성인인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보육시설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육시설의 질에 따른 보육교사의 보육 행동의 차이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보육시설의 물리적 사회적 상황변인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선행연구(신혜원, 1992; 이순형·이옥경, 2000; Clark-Stewart, 1992)들은 보육시설의 질이 아동의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과 정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보육시설의 물리적 변인 중 집단 크기와 성인 대 아동의 비율은 아동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아동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집단 크기는 독립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물리적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수이다(NAEYC, 1991). 성인 대 아동의 비는 보

육교사 한 사람이 보육해야 할 아동의 수를 의미하지만 집단 크기는 한 보육교사가 상호작용하게 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상호작용할 또래의 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집단 크기는 아동과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Collins, 1983), 또래간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양육자와의 개별적인 접촉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데, 보육시설에서 아동에게 개별적인 보육을 제공하는 기회는 집단 크기에 중재된다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라 또래 및 보육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보다 적절한 보육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 크기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김향자, 1993; 서현정, 1995)들은 대부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육교사나 또래 집단과 생활하며,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시설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상호작용 대상이 확대되는 시기이면서 양육자의 개별적인 보살핌을 계속 필요로 하는 3세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상호작용 대상과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라는 상황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에서 아래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보육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의 상호작용 활동은 집단 크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보육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와 또래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집단 크기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보육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와

보육교사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집단 크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집단 크기를 달리해 연구 대상 영아를 선정하고자 보육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1:7로 동일하나 집단 크기가 2:14, 4:28로 다른 두 집단에서 각각 10명의 영아를 남녀 동수로 표집하여 관찰 초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집단 크기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가능한 한 통제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이 유사하고 보육교사 대 영아의 비율이 동일하나 집단 크기가 다르게 편성된 보육시설 두 곳을 선정하였다. 두 집단의 보육교사들은 모두 정교사로, 교사 1인에게 7명의 영아들이 자신의 주요 보육 담당이다. 두 집단의 보육실 크기는 각각 29.16m², 40.05m²이었으며 흥미 영역 구성이나 교구, 교재의 수 등 두 보육실의 물리적 환경은 유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27개월에서 35개월 미만(평균 월령 32.5개월)의 영아로 모두 취업모의 자녀이다. 두 집단의 차이 검증 결과 영아의 연령, 성별, 형제 유무, 형제 순위, 보육받은 기간, 부모의 학력은 집단 크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일반적 특성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연구 절차는 예비 관찰과 본 관찰의 2회 관찰로 이루어졌다. 1차 예비 관찰이 적절한 관찰시간대 및 관찰도구의 적절성을 알

아 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자유놀이시간의 영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1시간동안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이를 본 연구자가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명과 함께 분석하여 선행연구를 기초로 영아와 또래 및 보육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관찰 범주를 고안하였다.

본 관찰은 보육시설의 오전 자유놀이 시간에 영아의 활동과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관찰대상 영아를 1시간 동안 비디오 녹화하였다. 녹화된 자료의 처음 10분은 영아들이 자유놀이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비디오 녹화에 익숙하지 상태이므로 자료분석에 사용하지않았다. 영아의 자유놀이 활동은 Holloway와 Reichart-Erickson(1988)이 고안한 범주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이 없는 개별활동과 상호작용이 있는 상호작용활동으로 범주화하였다. 상호작용활동은 상호작용 대상에 따라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틀은 다음과 같다.

영아와 또래 및 교사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자유놀이 활동을 분석한 Holloway와 Reichart-Erickson(1988)의 관찰범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예비관찰을 통해 보완한 관찰범주로 분석하였다. 먼저 영아와 교사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관찰범주는 지시 행동(가리키기)과 교수 행동(시범 보이기)의 하위범주를 포함하는 지시적 상호작용, 애정적 정서표현(웃

기, 신체적인 접촉하기)과 신체적 보살핌(도와 주기, 양육행동)의 하위범주를 포함하는 공감적 상호작용, 무반응과 제지하기(거부하기)의 하위범주를 포함하는 거부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다. 영아와 또래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관찰범주는 또래와 공동놀이, 애정적인 정서표현(쓰다듬기, 안기, 손잡기), 또래간 교류 활동(장난감 주기, 장난감 받기, 또래 제안 수용하기), 또래접근시도를 포함하는 우호적 상호작용과 신체적 공격성(밀기, 때리기, 괴롭히기), 무반응, 다투기(뺨기)를 포함하는 갈등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다.

영아와 또래 및 보육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교사 언어의 기능을 분석한 Pellegrino와 Scopeci(1990), 아동의 사회적 언어유형을 분석한 Pellegrini(1984)의 관찰범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예비관찰을 통해 실제 유아의 행동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관찰범주로 분석하였다. 영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기능은 공감, 질문·응답, 기술·설명, 조정, 지시의 5개의 관찰범주로 구성된다. 각 관찰범주의 정의 및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1) 공감: 화자나 청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긍정적 평가, 지지, 승인하거나, 자신의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적 표현(internal report), 평가(evaluation), 추정(attribution), 감탄사(exclamation), 지지반복(repetition), 위로(console)등의 하위범주를 포함한다 2) 질문·응답: 정보를 요구하거나,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질문(choice question), 정보-요구 질문(product question), 과정 질문(process question), 수사 의문(rhetorical question), 확인 질문(clarification question), 선택 질문에 응답(choice answer), 정보 요구 질문에 응답(product answer), 과정 질문에 응답(process an-

swer), 승낙(compliance)의 하위범주를 포함한다 3) 기술·설명: 사실을 보고하거나 사회적 규칙을 설명하고, 사건의 이유,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명명(identification), 묘사(description), 규범적 설명(normative explanation), 정의적 설명(definite explanation),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의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4) 조정: 개인적인 접촉과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으로 행위 요구(action request),허가 요구(permission request), 제안(suggestion), 화자 선정(speaker selection), 주위집중(attention), 주장(claim), 경고(warning), 항의(protest)와 같은 하위범주를 포함한다 5) 지시: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위해 청자의 행동을 지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명령(imperatives), 요청(requests), 금지(prohibition)와 같은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4. 자료의 분석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은 관찰 초점 영아를 중심으로 1인당 50분을 30초로 나누어 영아의 상호작용 유형을 관찰기록지에 전사하여, 이 시간동안 이루어진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모두 분석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연구자를 포함한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3명이 관찰체계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정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언어적 상호작용은 .92,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90이었다.

관찰된 상호작용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가 기술통계치로 사용되었고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별 차이 검증에는 비모수적 통계검증방법인 Mann-Whitney 검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개별활동과 상호 작용 활동

영아의 자유놀이중 소집단의 영아가 대집단의 영아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1.8배정도 더 많이 하며, 상호작용시 언어적 상호작용을 더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2>. 반면 대집단의 영아들은 배회하기, 혼자놀이, 또래관찰 등 상호작용이 없는 활동을 상호작용활동보다 더 많이 하였다.

<표 1>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개별활동과 상호 작용활동

구 분	소집단	대집단	Z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별활동	59.60(11.55)	78.80(19.09)	-2.11*
상호작용활동	119.4(43.78)	67.6(48.51)	-2.19*

* p<.05

<표 2>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

구 분	소집단	대집단	Z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호작용활동	119.4(43.78)	67.6(48.51)	-2.19*
언어적 상호작용	49.7(24.79)	23.2(24.05)	-2.23*
또래	31.0(18.26)	13.1(20.26)	-1.82
교사	18.7(17.49)	10.1(12.54)	-1.21
비언어적 상호작용	69.7(29.78)	44.4(27.70)	-2.04*
또래	46.4(21.05)	23.3(16.02)	-2.15*
교사	23.3(24.77)	21.1(11.22)	-3.4

* p<.05

2.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또래간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그 기능에 따라 우호적 상호작용과 갈등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집단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소집단의 영아가 대집단의 영아보다 또래와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소집단의 영아들이 대집단의 영아들보다 또래와 소꿉놀이, 도깨비놀이, 블록놀이와 같은 공동놀이를 더 많이 하고, 이 과정에서 또래간에 장난감주고 받기 같은 교류활동을 더 빈번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집단 크기에 따른 또래간 갈등적 상호작용의 빈도는 소집단은 평균 13.2회, 대집단은 평균 16.4회로

<표 3>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와 또래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기능

구 분	소집단	대집단	Z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호적 상호작용			
공동놀이	19.8(15.3)	3.1(4.1)	-3.20**
애정적인 정서표현	7.1(9.2)	4.3(7.9)	-1.30
또래간 교류 활동	18.6(13.0)	8.4(9.9)	-2.01*
또래 접근 시도	4.5(6.7)	3.1(4.9)	-.98
소 계	50.0(29.4)	18.9(21.5)	-2.49*
갈등적 상호작용			
신체적인 공격성	1.4(1.27)	6.8(6.80)	-2.38*
무반응/거부하기	4.3(3.92)	5.1(5.74)	-.42
다투기	13.2(8.38)	11.8(15.81)	-1.06
소 계	18.9(6.76)	23.7(17.58)	-2.3

* p<.05, ** p<.01

대집단의 평균이 다소 높아서, 대집단의 영아들이 소집단의 영아들 보다 또래간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는 집단 크기에 따른 또래간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소집단의 영아들이 대집단의 영아들 보다 또래간 상호작용에서 공감적 발화를 더 많이 하며, 특히 공감 기능의 하위범주인 '내적 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집단의 또래 상호작용에서 "바나나야"와 같이 사물에 명칭을 붙이는 '확인' 발화, "기차는 길어"와 같이 사물의 속성을 서술하는 '묘사' 발화, 또래에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가져가며)"놀고 줄게"라는 '제안' 발화, "수정아, 이것 좀 봐"하고 또래의 주의집중을 '요구'하는 발화, 자기 장난감을 가져가는 또래에게 "내 겨야". "너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라는 '자기 주장 및 경고' 발화 빈도가 대집단 또래 상호작용에서 보다 더 많았다. 또래간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단순한 언급이나 대답이 아닌 확장된 대화의 특성인 묘사와 확인 발화, 또래간 상호작용을 이끌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조정 발화, 명령·금지·요청 등 또래에게 행위 수행을 요구하는 지시 발화를 소집단의 영아가 대집단의 영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집단의 또래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본 결과 대집단의 영아가 소집단의 영아보다 또래간 상호작용을 덜 하며, 또래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도 협동적, 우호적 행동 보다는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집단보다 대집단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의 수가 많아서 또래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와 또래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능

상호작용의 기능	소집단	대집단	Z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감			
내적 표현	3.4(4.7)	.6(.84)	-1.99*
지지반복	1.1(2.13)	.4(.84)	-.59
감탄사	2.7(4.62)	.9(1.52)	-.98
소계	7.2(6.42)	1.9(2.18)	-2.44*
질문-응답			
정보요구질문	2.5(4.01)	1.1(2.81)	-1.41
확인질문	2.9(2.18)	3.9(7.75)	-1.51
응답	3.7(3.97)	3.8(9.34)	-1.35
소계	9.3(8.47)	8.8(17.36)	-1.35
기술			
확인	3.5(3.78)	.1(.32)	-2.82**
묘사	4.2(4.16)	1.6(3.2)	-2.00*
소계	7.7(6.98)	1.7(3.50)	-2.82**
조정			
제안	2.1(2.02)	.9(2.51)	-2.03*
주의집중	7.2(4.85)	.6(1.27)	-3.28**
주장	8.3(6.87)	4.8(8.68)	-1.94
소계	17.6(9.89)	6.3(12.37)	-3.04**
지시			
명령 및 금지	7.6(6.38)	1.6(2.07)	-2.82**
요청	6.8(9.16)	.1(.32)	-2.10*
소계	14.4(10.55)	1.7(2.31)	-3.13**

* p<.05, ** p<.01

3.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보육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영아와 보육교사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는 소집단이 대집단보다 많지만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집단 크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는 영아와 보육교사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기능이 집단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시적 상호작용, 공감적 상호작용, 거부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비언어적 상호작용 중 보육교사가 영아에게 한 비언어 행동에서 안기, 쓰다듬기, 웃기, 신체적 보살핌과 같은 공감적 상호작용만이 집단 크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서 소집단에서 영아와 보육교사의 애정적인 접촉이 대집단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와 교사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기능

구 분	소집단 대집단		Z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시적 상호작용			
지시 행동	2.7(2.54)	3.2(2.57)	- .42
교수 행동	4.4(4.62)	5.8(5.45)	- .53
소계	7.1(6.52)	9.0(6.98)	- .42
공감적 상호작용			
애정적인 정서 표현	9.2(5.37)	3.2(3.39)	-2.59**
신체적인 보살핌	.3(.68)	.7(.95)	-1.03
소계	9.5(5.54)	3.9(3.32)	-2.37*
거부적 상호작용			
무반응, 거부하기	1.8(1.32)	.30(.48)	-2.33
제지하기	.3(.68)	.8(1.32)	- .98
소계	2.1(1.45)	1.3(1.16)	-1.35

* p<.05 ** p<.01

<표 6>는 집단 크기에 따라 영아와 보육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능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영아와 보육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하위 범주 중 지시 범주만 집단 크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공감, 질문-응

답, 설명, 조정 범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집단의 교사는 지시어를 7.4회 사용한 반면, 대집단의 교사는 18.5회를 사용하여 대집단의 교사가 영아에게 지시어 사용을 더 많이 하였다. 지시어를 하위 범주 별로 살펴본 결과 대집단의 교사가 소집단의 교사보다 영아에게 지시할 때 명령이나 금지성

<표 6> 집단 크기에 따른 보육교사의 발화 기능

보육교사의 발화	소집단 대집단		Z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감			
내적 표현, 추정	.10(.32)	.90(1.85)	- 1.55
감탄사, 평가, 지지반복	.32(4.32)	3.80(2.94)	- .95
위로	.40(.67)	.40(1.27)	- .92
	3.70(4.52)	5.10(4.84)	- .87
질문-응답			
선택질문	2.20(2.15)	2.20(2.90)	- .38
정보요구질문	12.70(8.59)	9.70(8.43)	- .98
확인질문	6.40(5.08)	6.50(5.13)	- .04
응답	1.60(2.50)	1.50(4.09)	- .83
	22.90(16.15)	19.90(15.77)	- .45
설명			
확인, 묘사	10.10(12.76)	6.60(6.16)	- .15
설명	1.60(1.71)	2.60(3.69)	- .27
	11.70(14.14)	8.80(8.57)	- .11
조정			
제안	5.10(4.65)	7.70(7.95)	- .64
주위집중	6.60(3.23)	7.80(5.37)	- .19
경고	.20(.42)	1.90(2.28)	-2.42*
	11.90(5.68)	17.40(12.84)	-1.41
지시			
명령 및 금지	3.00(2.75)	9.80(7.47)	-2.55*
요청	4.40(2.63)	8.70(5.76)	-1.75
	7.40(4.45)	18.50(10.04)	-2.84**

* p<.05 ** p<.01

발화를 더 많이 하며 화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공손한 표현인 요청 발화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치워”하고 명령하고, “장난감 던지지마”하며 금지하는 것과 같은 지시어는 주로 교사들이 영아들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보육실의 일과를 진행할 때 많이 나타나는 발화로 집단의 크기가 커질 때 교사의 관리 행동이 증가하여 지시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언어적 상호작용 중 조정 범주는 전체적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위범주 중 경고성 발화 사용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대집단의 교사들이 소집단의 교사보다 영아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또 그러면 선생님 화내실 거야”와 같은 경고성 발화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집단 크기가 커질 때 교사의 지시어, 통제어 사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Pellegrino & Scopecci, 1990). 또한 아동의 언어발달이 교사의 통제어 사용과 부적 상관에 있다는 선행연구(McCartney, 1984)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집단이 영아에게 부정적 언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상호작용 대상과 집단 크기라는 상호작용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같지만 집단 크기가 다른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영아와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에 비추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의 영아가 대집단의 영아보다 상호작용이 없는 개별활동보다 상호작용이 있는 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둘째, 소집단의 영아가 대집단의 영아보다 또래와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또래 접촉은 영유아에게 사회적 유능감과 적응적 사회 행동을 증진시키고(Coie, 1990), 자아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게 한다(Piaget, 1926)는 관점에서 볼 때 좋은 또래 관계 성립과 유지하는 영유아 발달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소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영아 발달에 더 바람직한 환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집단 크기에 따라 영아와 보육교사의 전체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집단의 보육교사가 대집단의 보육교사보다 영아에게 쓰다듬기, 웃기, 신체적 보살핌과 같은 공감적 상호작용과 개별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였다. 반면 대집단의 보육교사가 소집단의 보육교사보다 영아에게 명령, 금지, 경고성 발화 등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대집단보다 소집단에서 개인차를 존중하는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우호적이라는 선행연구(김향자, 1992; 서현정,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인이 근접발달지대 내에서 아동의 발달을 안내한다는 Vygotsky의 관점에서 볼 때 소집단은 보육교사가 영아 개인의 발달 수준과 개인적 특성을 보다 잘 파악

할 수 있는 환경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Piaget와 Vygotsky의 견해와 관련해 논의해 보면, Piaget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성인과의 상호작용보다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7-8세 이전까지 아동은 자아중심적 특성으로 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Piaget는 사회적 언어의 출현은 7-8세경에나 가능하다고 했고 그 이전에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영아가 자유놀이 활동에서 또래나 교사와 상호작용이 없는 개별활동보다 상호작용 활동을 더 많이 하며,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상호작용 상황에 적절한 기능을 하는 사회적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며, 3세경이 되면 대상에 따른 사회적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본 Vygotsky의 이론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보육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동일하더라도 집단 크기가 커지는 것은 영아가 상호작용하게 되는 또래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며, 교사에게도 보육해야 할 영아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집단 크기는 또래간 상호작용과 영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었다. 즉 집단 크기가 커지면 또래의 수가 많아져서 또래간의 친밀도가 낮아져서 또래간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집단 크기가 커지면 보육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같더라도 교사들은 전체 영아에 대한 보육 책임을 느껴서 영아 개개인에게 반응적 양육을 제공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또래간 상호작용을 강조한 Piaget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는 Vygotsky

의 관점에서 볼 때 대집단은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환경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소집단은 또래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교사가 영아 개인에게 반응적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아가 또래 및 보육교사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환경으로 대집단보다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사와 영아의 비율이 같은 경우에 집단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영아에게 보다 적절한 발달 환경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교사대 아동의 비가 1:7이고 집단 크기가 14명, 28명인 보육시설 두 곳을 선정하여 영아와 또래 및 보육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집단 크기를 보다 다양하게 선정하여 집단 크기의 변화에 따른 영아와 또래 및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면 더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 크기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을 가능한 한 통제된 상태에서 연구대상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집단을 구하기 어려워서 두 집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아와 교사의 인성 특성이 줄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 통계값의 표준편차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영아와 또래 및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자유놀이 활동에서 얻어진 자료이므로 다른 유형의 활동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영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빈도로만 분석하여 상호작용의 지속시간이나 상호작용의 강도 등은 연구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영아와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상호작용은 누구의 발의로 시작되었는가, 상호작용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양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반응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등을 역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가 아동들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상호작용 대상에 따라 살펴보고 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 발달론과 사회적 맥락론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며, 집단 크기라는 환경변수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중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영아와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상호작용의 양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까지 분석하여 2세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2세아의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의 특성에 관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영아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영아의 발달과 교육에 더 적절하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향자. (1993). 학급크기와 교사수 변화에 따른 유아와 교사의 행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현정. (1995). 유치원에서의 집단 크기에 따른 유아의 행동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원. (1992).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강이(1998). 대물 다툼 상황에서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형 · 이옥경(2000). 한국 보육시설의 영아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 *한국아동학회지* 21(1), 121-140.
- Blount, B. (1984). Mother-infant interaction. In A. Pellegrini & T. Yawkey (eds.), *The development of oral and written language in social context*. Norwood, NT : Ablex.
- Clark-Stewart, A. (1992). Consequences of child care -One more time : A rejoinder. In A. Booth (Ed.), *Child care in the 1990s : trends and consequenc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J : Hillsdale.
- Coie, J. D. (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ins, R.C. (1983). Child care and states : The comparative licensing study. *Young Children*, July, 3-11.
- Hay, D. E., Pederson, J., & Nash, A. (1982). Dynamic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In K. H. Rubin & H. S. Ross (eds.),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New York : Springer-Verlag.
-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 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9-53.
- McCartney, K. (1984). Effect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260.
- NAEYC (1991). *Accredit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Washington, DC : NAEYC.
- Pellegrini, A. (1982). Learning through verbal interac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 39-46.

- Pellegrini, A. (1984). The development of functions of private speech. In A. Pellegrini & T. Yawkey (eds.), *The development of oral and written language in social context*. Norwood, NT : Ablex.
- Pellegrino, M. & Scopesi, A. (1990). Structure and function of baby talk in a day carecentre.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101-114.
- Piaget, J. (1926). 송명자 · 이순형 역 (1985). *아동의 언어와 사고*.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Rubin, K., Fein, G., & Vandenberg, B. (1983). Play.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IV :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Vygotsky, L. (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 MIT.